

베트남 연행문헌 작품의 현황, 연구 성과 및 새로운 자료

丁克順*

- | | |
|----------------------|------------|
| I. 求封과 朝貢 | IV. 새로운 자료 |
| II. 使行과 연행 문헌 | V. 결론 |
| III. 베트남 연행 작품 연구 현황 | |

• 국문초록

베트남과 중국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구한 수교관계를 이어왔다. 베트남은 문화와 문헌에 있어 漢字문화와 한자문헌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정치와 외교 영역에서도 양국은 오랫동안 奉貢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베트남 왕조는 중국에 사절단을 수시로 보내 求封하고 貢納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기록된 베트남의 연행록은 베트남의 귀중한 유산으로 자리 잡았고, 베트남 국내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연구되고 소개되었다. 특히 『越南漢文燕行文文獻集成』이 출판된 이후,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본문에서는 최근 한문연행록에 대한 베트남의 연구 성과와 새로운 자료에 대한 수집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이 주제에 대해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주제어 : 베트남, 邦交詩, 한자연행록, 한자문헌

* 越南社會科學翰林院 漢喃研究院 教授

I. 구봉과 조공

역사적으로 구봉과 조공은 베트남 사신들의 중국 사행의 주요 목적이었다. 베트남 역대 조정의 조공과 구봉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潘輝註의 『歷朝憲章類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나라를 위한 事大와 酬應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수호 관계의 의리이다. 우리 베트남은 남쪽 땅을 다스리며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비록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 그 규모가 차이가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황제라 자칭하고 대외적으로 신하로써 封號를 받으며 理勢에 따르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것이다. 책봉의 예와 공물을 바치는 도리는 모든 나라들이 대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로 예의 輕重과 繁簡은 前後가 다를 수 있으니 모르면 안 된다.”¹⁾

실제로 베트남은 10세기부터 점차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왕조를 세웠고 봉건 왕조시기에 이르러 중국에 구봉을 하였다.

己亥年(939)에 응오 꾸옌(吳權)이 황제를 자칭하면서 최초로 베트남 독립 봉건 왕조를 세웠으며 딘 왕조(丁朝)는 戊辰年(968)에 다이 꼬 비엣국(大瞿越國)을 세웠다.

“무진 원년, 황제가 즉위하여 나라를 세우고 다이 꼬 비엣국이라 이름하였다. 華閭洞으로 옮겨 도읍하여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 성지를 쌓고 궁전을 만들고 의식을 제정하였다.”²⁾

비록 스스로 황제라 칭하였지만 국내 다른 세력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기에 베트남 황제는 北朝의 책봉이 필요하였다. 구봉 또한 이 시기부터 나타났다. 『역조헌장유

1) 潘輝註, 『歷朝憲章類誌·邦交志』 권46, 한남연구원 소장본(VHv1502/15), 1면. “爲邦之事大而應酬之際關係匪輕, 故修好之義哉. 我越奄有南土通好中華, 雖君民建國, 自別規模, 而內帝外臣, 常應封號, 揆詣理勢, 誠所宜. 然期册封之禮, 貢聘之儀, 歷代邦交視爲關著, 其間輕重繁簡之禮, 前後或殊, 不可以不知也.”

2) 『大越史記全書』 4, 內閣官板, 社會科學出版社, 하노이, 1984, 1면. “戊辰元年, 帝即位建國, 號大瞿, 越徙京邑於華閭洞, 肇新都, 策城池, 起宮殿, 制朝儀.”

지』에는 “우리나라는 흥 브영(雄王) 때에 이르러서야 중국과 소통하였으나 名號가 미약하여 明堂에 설 수 없었다. 趙陀 때에 이르러 한나라는 조타를 南越의 藩王으로 봉하였다. 그 후에 재위한 삼대의 왕도 오직 제후로 인정했을 뿐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漢·唐의 郡縣소속으로 지내다가 丁皇(丁皇)이 使君의 반란을 평정하고 강역을 개척하면서 중국 조정이 책봉하였고 비로소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³⁾ 라고 하였다.

실제로 중국이 베트남을 왕으로 책봉한 것은 중국의 ‘朝貢-受封’의 전례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의 독립적 지위를 확인해준 것이었다. 베트남은 중국과 인접해 있어 늘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구봉은 이웃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 수단이었다.

중국에 구봉을 한 베트남 왕조는 리 왕조(李朝, 1010~1225), 쩐 왕조(陳朝, 1225~1400), 레 왕조(黎朝, 1428~1527), 막 왕조(莫朝, 1527~1592), 중흥 레 왕조(黎中興, 1600~1788), 띠이 선 왕조(西山王朝, 1788~1802)에서 응우옌 왕조(阮朝)의 트득 황제(嗣德帝, 1848~1883)까지 이어졌다. 1885년 중국과 프랑스의 ‘천진조약’ 체결로 베트남과 서구와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上國-諸侯’ 관계는 막을 내렸다.

베트남의 역대 봉건 황제들은 집권이후 중국의 책봉을 받으려 하였는데 이는 나라의 안보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베트남 황제는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이익까지도 고려했다. 그들은 정통성으로 ‘人心’을 안정시키고 든든한 방패로 가족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였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天朝’로부터 왕으로 책봉 받으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역대 왕조들은 주변국들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천조’의 책봉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도 베트남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천조’와 ‘연방국’ 간의 정치·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국왕의 구봉을 흔쾌히 받아 주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베트남 사절단이 중국에 구봉을 하고 난 후에 중국 황제도

3) 潘輝注, 앞의 책, 2면. “我國自雄王時, 纔一通中國, 而名號猶微, 不與明堂位列. 及於趙陀, 漢封陀為南越, 三王僅北內諸侯, 亦未常表為國也. 其後內屬漢唐, 遂為郡縣, 至于丁皇平定使君, 推拔疆宇, 而中朝册封之典, 始自別為一國云.”

사절단을 보내 베트남 국왕을 책봉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역대 황제들이 등극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국 황제에 대한 구봉이었다. 통상적인 예에 따라 베트남 황제가 죽으면 새로운 황제는 중국으로 사절단은 파견해 초상을 알리고 또 다른 사절단을 파견하여 구봉하였다. 이 두 사절단은 모두 고위 관리가 인솔하고 관원들이 수행하였다. 두 베트남 사절단의 보고를 받으면 중국도 두 사절단을 베트남으로 파견하였다. 한 사절단은 베트남 국왕을 책봉하고 다른 하나는 죽은 황제에게 제배하기 위한 사절단이었다.

구봉과 마찬가지로 조공 또한 베트남과 중국의 주요한 외교 활동이었다. 중화를 중심으로 보는 사상, 즉 ‘中國思想’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여기고 중국 봉건왕조의 조공 관계에 속하는 모든 다른 국가들 보다 높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관계에 따라, 중국은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베트남 포함)에게 조공 제도를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베트남은 조공 외에도 ‘천조’에 聘禮를 제공하였다. 貢은 세금으로, 쌍방의 약정에 따라 ‘藩屬國’이 ‘上國’에 반드시 귀중한 예물을 제공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면, 聘은 방문할 때 바치는 선물로서 일정하게 정해진 것 없이 보통은 서로 교류하거나 승리를 선포할 때, 책봉할 때에 바쳤다.

10~12세기, 베트남 딘 왕조(丁朝, 968~980), 띠엔 레 왕조(前黎, 981~1009), 리 왕조(李朝, 1010~1225)는 주로 감사를 표하거나 친교를 맺기 위해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조공이 아닌 빙공을 하였다. 리 왕조(李朝) 시기부터 친교를 맺고 방물을 조공하기 위해 송나라 등에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당시 조공 시기는 정례로 정해지지 않았고 報聘(책봉을 받은 이후) 또는 전쟁과 관련한 일을 보고해야 할 때 사절단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다. 쩐 왕조(陳朝) 시기, 쩐 태종(陳太宗) 元豐 8년에 “사신을 파견하여 송나라와 왕래하였고 레푸쩐(黎輔陳)과 주박람(周博覽)을 사신으로 원나라에 파견하였다. 당시 원나라 사신이 歲幣와 공물을 늘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황제는 레푸쩐에게 주박람과 함께 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하였다. 결국 3년에 한번 공물을 바치는 것을 상례로 결정되었다.”⁴⁾ 중흥 레이(黎中興) 왕조 때에는, 3년에 한번 공물을 바치는 것을 6년에 한번으로 바꾸되 공물의

4) (越南)文學院, 『李陳詩文』集2, 卷上, 社會科學出版社, 1988, 458頁.

수를 배로 늘렸다. 이렇게 베트남 봉건 왕조는 구봉과 조공을 위해 사절단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다.

II. 사행과 연행 문헌

사료에 따르면, 딘 왕조(丁朝, 968~980) 시기부터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972년, 976년, 977년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전 레 왕조(前黎朝, 980~1009)시기에는 983년, 985년, 987년, 991년, 993년, 996년, 997년, 1004년, 1007년, 1009년 등 모두 10차례 중국으로 사신을 보냈다. 리 왕조(李朝, 1009~1225)시기에는 많은 사절단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는데 1010년~1073년까지 모두 27차례 송나라로 출사하였다. 쩐 왕조(陳朝, 1225~1400)시기에도 중국에 많은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1262년(元中統 3년)~1334년(元元統 2년)까지 사절단을 47차례 원나라로 파견하였다.

베트남 레 왕조(黎朝, 1428~1527) 초기, 막 왕조(1527~1592), 레징 왕조(黎寧朝, 1593~1788), 띠이 선 왕조(西山朝, 1789~1802), 응우옌 왕조(阮朝, 1802~1945)는 중국의 명·청 시기에 해당되는데, 100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매번 내용을 기록하거나 작품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 사절단 파견과 관련한 작품은 쩐 왕조(陳朝, 1225~1400) 시기인 1314년에 阮忠彦이 편찬한 『介軒詩集』이다. 여러 왕조에 걸쳐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히 17세기에서 19세기 말의 중흥 레 왕조와 응우옌 왕조까지의 기록이 많다. 가장 후대 작품은 『中州酬應集』 또는 1884년 裴文禩의 『燕輶萬里集』이다.

실제로 사절단의 파견 과정과 작품으로 기록된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레징 왕조 시기의 수교 활동은 1597년에 시작, 당시 일흔이 넘는 馮克寬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그는 萬壽聖節 연회에서 30수의 축하시를 바쳐 萬曆 황제의 칭찬을 받아 “현명한 인재가 어딘들 없으랴(賢才何地無之?)”라는 비답을 받았다. 풍극관이 지은 축하시는 『梅嶺使華史記』에 수록되어 있다.

1760년부터 1762년까지 正史 레꾸이돈(黎貴惇)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사절단은 중국으로 간 사절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절단이다. 당시 사신을 다녀오면서 많은 자료를 남겼는데, 레꾸이돈이 편찬한 『北使通錄』만 해도 4권에 달한다. 응우옌 후이 오아인(阮輝瑩)의 작품은 레쥙 왕조 시기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응우옌 후이 오아인이 편찬한 『奉使燕台總歌』는 모두 470행(68체 한자)이며 120수의 시와 사행 노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사절단의 한문 작품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집되고 소개되고 있다. 판휘주가 저술한 『역조현장유지·문적지』는 베트남 史志目錄 가운데 대표작이다. 모두 213종의 베트남 書目과 리 왕조 시기부터 후 레 왕조(後黎朝) 시기의 문헌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연행 사신들의 시문 작품의 편목도 있다.

1. 『介軒詩集』 1권
阮忠彦 저. 원집은 산일되었고 일부 시가 여러 詩選에 흩어져 전한다. 필자의 先叔 止庵公께서 수집·저술한 시문이 80여 편에 달한다.
2. 『峽石集』 1권
范師孟 저. 詩情에 호탕함과 통쾌함이 가득하다. 쩌 왕조 말기 名家이다.
3. 『星輶記行』 2권
武瑾 저. 사신들이 역참에 머물 때 지은 시가 기록되어 있다.
4. 『義川觀集』 1권
陶儼 저. 사신들이 시를 쓰고 읊은 것들을 기록하였다.
5. 『使北國語詩集』 1권, 『使程曲』 1권
黃仕愷 저.
6. 『金陵記』 1권
杜覲 저. 국어로 北朝 南京의 세간 풍물을 기록하였다.
7. 『馮公詩集』 2권
馮克寬 저. 16세에 지은 시부터 사신 가서 지은 獻壽詩까지 모두 160수이다. 대체로 文辭가 맑고 부드러우며 기운이 웅장하면서도 우아하다. 현수시는 현명한 군주를 노래한 것으로 조선 사신 李曄光이 쓴 서문이 있다.
8. 『祝翁奉使集』 1권
鄧廷相 저. 호는 祝翁. 현재 유실되었다.

9. 『阮狀元奉使集』 1권
阮登道 著.
10. 『星槎詩集』 1권
阮公沆 著. 북경으로 사신 갈 때 지은 시로 시의 흐름이 막힘이 없어 읽기 쉽다.
11. 『浴軒詩集』 1권
阮翹 著. 사신 가서 지은 것이다.
12. 『北使效顰詩』 1권
黎有喬 著. 빈호우(永佑) 연간에 중국으로 사신 갈 때 지은 시이다.
13. 『使華叢詠』 2권
阮宗奎 著.
14. 『使華發步詩集』 1권
鄧春澍 著.
15. 『阮探花集』 1권
阮輝 1+瑩 著.
16. 『聯珠詩集』 4권
黎貴惇 著.
17. 『段黃甲奉使集』 1권
海安 段阮俶 著.
18. 『瑤亭使集』 1권
瓊瑠黃甲 胡士棟 著.

『역조현장유지』에 기재된 19부의 연행 시문 외에도 『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베트남 소장 편)』에는 도공정(陶公正) 등이 저술한 『北使詩集』, 완공기(阮公基)의 『使程日錄』, 정유완(丁儒完)의 『默翁使集』, 무휘정(武輝珽)의 『華程詩』, 려형(黎炯)의 『北行叢記』, 려유단(黎惟宣)의 『使輶行狀』 등의 작품들이 있다. 『베트남연행한문문헌집성』에는 베트남에 현존하고 있는 독립적인 책 또는 권으로 편찬된 연행 문헌이 총 79종 실려 있다. 1314년부터 1884년까지 500여 년 동안의 중국과 베트남의 유구한 왕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⁵⁾

베트남 사절단은 사행 때 마다 많은 진귀한 한문 문헌을 남겼는데 이것을 연행록이라 한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절이 출사하면서 남겨놓은 작품은 모두 漢喃研究院 서고에 소장되어 있고 『베트남연행한문문헌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베트남과 해외 학자들은 『베트남연행한문문헌집성』과 일부 漢喃 邦交 작품을 주목하고 있다.

Ⅲ. 베트남 연행 작품 연구 현황

이와 같은 사행 작품은 베트남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문학에서 사행 문학, 연행시를 형성하였다. 20세기 국어(越南語)가 보급 될 때 일부 한남 작품들이 잡지 등에 번역·소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南風雜誌』가 있다. 그 후 『越南文學總集』이 편찬되어 많은 사행 작품이 번역되고 소개되었다. 베트남 한남연구원의 원로 학자들도 邦交 시문을 정선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燕行詩』를 출판하였다.

馮克寬, 黎貴惇, 阮攸, 吳時任, 段阮俊, 阮提, 吳時仕, 潘輝益, 阮文超, 范慎通, 鄧輝著 등 여러 작가들과 작품들이 연구되고 소개되었다. 『한남잡지』에는 연행 작품을 소개하는 논문도 있다.

해외에서 베트남 사행 작품의 발간은 매우 적고 작가에 대한 집중도도 균일하지 않다. 현재 베트남은 전면적으로 베트남 사신들의 詩歌를 소개한 종합 서적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베트남연행한문문헌집성』이 출판되면서 많은 논문에서 연행 사신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阮黃燕이 쓴 「國外對越南燕行的研究」(『건터대학교학잡지(芹苴大學科學雜誌)』 36(2015), 64~73)는 베트남 연행에 대한 해외 연구를 통계한 논문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2014년 6월 31일 이전의 중국어와 영어로 된 논저를 주로 통계하였으며, 잡지 등에 실린 논문과 논저 그리고 연구 계획을 포함해 총 52개의 연구 성과를 통계하였다. 주로 중국, 타이완, 홍콩, 미국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李文復, 裴文禎 등 베트남 연구원들이 연행 작품에 대한 박사

5) 上海復旦大學, 文史研究院·越南漢喃研究院, 『越南燕行漢文文獻集成』, 上海復旦出版社, 2010.

논문을 썼다.

베트남 사절단의 사행 여정과 작품에 대한 연구 외에도 베트남 사신과 한국 사신들이 중국에서 중국의 和昌한 시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일부 연구 논문에서는 『사화총영』에 기재된 완중규와 시를 주고받은 李半村이 한국인이라고 하나 실제 그는 중국인이다.

각 연행 작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사화총영』의 경우 필자도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한 바 있다. 『사화총영』은 18세기 레쥬 왕조(黎淸朝) 시기 완중규와 완교가 북경 사행 때 지은 시집으로 중국 관리와 다른 나라 사신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그들이 써준 서문도 있다. 『사화총영』은 베트남 사신과 외국 유명한 인사들 간의 문화교류를 잘 보여준다.

완중규의 北使와 관련해 역사 자료 중에서도 『大越史記續編』의 顯宗 慶興 2년(丁酉, 1741) 12월의 기록에 따르면 “정사 완교와 부사 완중규, 鄧茂를 청나라로 파견하고 歲貢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황제가 조서를 내린 시간이었고 실제로 사절단은 떠날 준비를 해야 했기에 경흥 3년(무술, 1742) 가을에 이르러서야 사행 길에 올랐다. 이는 완중규의 『使程新撰』 서두에 “경흥 3년에 점점 운이 띄기 시작하였고 가을인 8일에 중국으로 길을 나섰다(景興三年龍抬頭, 秋天八日使華啟程).”라는 내용과 서로 맞물린다. 『대월사기속편』에 따르면 사절단은 1745년에 귀국하였다고 한다.⁶⁾

『사화총영』은 모두 5편의 서문이 있고 그 중 4편은 외국인이 쓴 것이며 한 편은 베트남 사람이 썼다. 외국인 張漢超와 이반춘은 전집과 후집으로 나누어 각각 2편의 서문을 썼다.

이반춘이라는 士인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한국인 또는 한반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베트남 사신과 교류한 한국 사신 중에 풍극관 시집에 서문을 쓴 李晬光, 려귀돈과 시를 주고받은 李輝中, 다이비엣국(大越國) 사절단 정사 段阮淑 그리고 부사 武輝珽과 교류한 李致中(이휘중의 조카)등과 같이 이씨 성을 가진 한국 사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씨 성을 가진 한국 사신들은 베트남 사신을 위해 시집에 서문을 써주거나 唱和시를 써주었다.

6) 『大越史記續編』, 한남연구원 소장본, 일련번호 A 1189/1-2.

사실 이반춘은 중국 사람이다. 1748년 서문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나라의 역대 임금들은 제후들을 생각하고 먼 나라를 어루만지고 奉正朔을 존중하고 예의를 바로 잡는 것을 대대로 계승해 왔다. 천팔백 나라 중에서 조선과 안남은 특별히 문물의 나라로 불리었다(我國家列聖相承, 懷侯柔遠尊正朔奉冠帶者. 千八百國而朝鮮, 安南尤稱文物之邦).”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서문 내용을 통해 베트남 사절단의 남경 여정에서 교류활동을 더욱 이해할 수 있다. 그 여정에서 베트남 사신들은 현지 인사들, 관리들과 서로 교류하였다. 이러한 교류에서 완종규는 그들의 호의를 받았고, 그들은 완종규에 대하여 매우 진중한 사람이며 그의 시문을 존경하고 사모하였다.

『사화종영』에는 장한초와 완종규의 창화 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여러 인용문을 통해 베트남 사절단과 정사 완종규에 대한 돈독한 우호관계가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두 명의 유명한 인사 이외에도 衡山 歐陽旺, 欽差 翰林 禮部郎中 鄭壁齋, 嘉行大夫 武昌高, 正堂 王雲翔, 江南詩客 卓山氏, 湖南 王居士 등 사신 및 현지 유지들이 완종규와 시를 주고받았다.

이처럼 베트남 사신 완종규는 시적 재능과 해박한 지식으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하였고 조정의 직책도 제대로 수행하였다. 조정에서 파견된 사신들은 대부분 지식인과 功臣이었으며 그들은 베트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독립성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베트남 사신들의 명성을 높였고 베트남 국가와 베트남 사람도 존경을 받았다. 이는 오늘날 베트남 외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선례이다.

완종규의 사행 여정 또한 다른 사신들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혹은 육로로 혹은 수로로’ 다니는 길고 험난한 노정이었다. 완종규는 사행단에서 중책을 맡은 사신이자 재능이 뛰어난 시인이었다. 그는 성공적으로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였고 그의 작품 『사화종영』은 베트남 문화에 있어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베트남 사신들의 작품 대부분은 시집으로 그들의 시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베트남 사신들의 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제재

邦交詩로서 창화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베트남 왕과 신하, 중국 왕과 신하 간의 만남과 교류에서 지어진 것이다.

2. 이국의 풍경과 문물

베트남 사신들은 연행 노정에서 중국의 명승고적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일어나는 감정을 시로 남겼다. 현지 풍경을 보고 시를 지었으나 결코 조국을 잊지 않았다.

3. 역사 지명과 역사 인물에 대한 영회시

현지 역사 인물과 지명에 대한 이해와 기억을 통해 평론적인 시를 지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베트남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

4.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진실한 마음과 강한 현실성을 띤 시로, 시인은 작품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다. 완충언, 풍극관, 오인정이 지은 시에도 이러한 정서가 담겨 있다.⁷⁾

IV. 새로운 자료

새로운 자료란 『베트남연행한문문헌집성』에 수집되어 있지 않거나 한남연구원 서고에도 다른 지역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전 왕조(陳朝) 시기, 완충언의 『개헌시집』 외에 막딘치(莫挺之)의 작품이 있다. 1308년 그가 사행 길에 기록한 『本國記事』(A989)이다. 막 왕조(莫朝) 시기에도 많은 사절단을 중국으로 보냈으나 『베트남연행한문문헌집성』에는 이 시기와 관련된 작품이 수집되어 있지 않다. 이 시기에 살았던 레광비(黎光賁)는 19년 동안 사신으로 중국에 갔으며 『思鄉韻錄』(A.699)을 저술하였다.

레 왕조(黎朝) 시기인 1760년에 완휘영은 청나라 사신단 부사로 임명되었고 1764년에는 1766~1767년 북경 사신단의 정사로 선발되었다. 북경사신단과 관련된 저서로는 현재까지 『奉使燕臺總歌』, 『碩亭遺稿』, 『北輿輯覽』, 『皇華使程圖』 등 4편의 연행사 서적을 찾았다. 『베트남한문연행문헌집성』 5책에 수록된 「奉使燕京總歌并日記」와 「北輿輯覽」도 완휘영이 연경 사행 여정에서 쓴 시집이다. 하지만, 한남연구원

7) 阮公理, 「越南古典文學中的邦交詩: 面貌與價值」, 『越南研究』, 中國廣西師範大學, 2020, 12면.

서고와 2004년도에 출판할 당시 『황화사정도』작품은 없었다. 이 책은 중국 사행 과정에서 그린 지도이며 응우옌 후이미(阮輝美)와 응우옌 휘(阮輝)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다.

『황화사정도』는 사행 과정에서 그린 것으로 사행 출발지(하노이, 탕롱)와 각 관문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북경에서 직접 본 것을 그렸으며 각 참여, 길, 마을과 도시, 산수와 지명, 산물을 그리고 그림 옆에 이름을 적어 놓았다. 18세기 중국 사행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과 지리적인 환경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수도 神京에서 육로 또는 수로로 寧明으로 가는 지도를 정확하게 해석해 놓았다. 완휘영은 중국 강남 팔경에 이르자 매우 감격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9월 13일 남경에 도착하였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 강남은 옛날 수도였던 금릉이 있는 지역이다. 뒤에는 覆舟山이 가로 막고 있고 앞에는 聚寶山이 우뚝 서있다. 石頭三軍이 오른 쪽에 머물러 있고 秦淮가 그 중간을 가로 지르고 있다. 성 둘레는 180리고 성 안에는 13개의 문이 있으며 없는 물건이 없다. 백여 개의 書坊과 織造坊이 있다. 빼곡한 유람선 난간에는 테이블이 놓여 있고 악기 소리로 시끌벅적하다. 민간에서는 집에서 화분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여 어떤 이는 백여 개가 넘는 화분들을 전시해 놓고 손님들에게 팔고 있었다.”⁸⁾

완휘영의 한문 연행 작품은 베트남 사절들의 시각으로 길고 긴 노정 중 드넓은 중국 땅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방대한 지식의 저장고와 같다.

V. 결론

역사적으로 베트남과 중국의 외교 활동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바로 구봉, 세공, 빙공 활동이다. 사행을 나선 사신들은 대부분 학자들이었고 그들이 사행과정에서 기록한 내용과 창작물은 내용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모두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사행 작품들은 베트남 한문 문학에서 연행문학 문파를 이루었다. 이러한

8) “九月十三日到南京，共一月程。江南古金陵建京之地。覆舟山阻其後，聚寶山當其前。石頭三軍踞其右，秦淮橫互其中。城周回一百八十里。內開十三門，百貨悉有。書坊可百餘家。有織造坊，遊船如織，船有欄桿食卓絲竹之聲喧闐。閭巷俗好盆景家養或至百盆以售客。”『黃華使程圖』，阮輝家 소장.

한문 유산들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문 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 지역에 속하는 여러 나라 학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潘輝註, 『歷朝憲章類誌·邦交志』 권46, 한남연구원 소장본(VHv1502/15)
『大越史記全書』, 內閣官板, 印影, 社會科學出版社, 河內市, 1984
『大越史記續編』(1676~1789) 翻譯本, 社會科學出版社, 河內, 漢喃研究院藏本, 編號A 1189/1-2, 1991
『使華叢詠』, 越南漢喃研究院的圖書館, 號碼 A.1552
上海復旦大學, 文史研究院-越南漢喃研究院, 『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 上海復旦出版社, 2010
『越南漢喃遺產-書目提要』, 社會科學出版社, 1993
劉春銀·王小盾·陳義主編, 『越南漢喃文獻-目錄提要』, 2002
Lê Thị Vĩ Phượng(黎氏風尾), Nghiên cứu văn bản tác phẩm Sứ hoa tùng vịnh của Nguyễn Tông Khuê(對阮宗奎的『使華叢詠』本版研究), 越南河內國家大學的社會科學大學的漢喃碩士論文, 2009
Bùi Duy Tân(裴維新), “Nguyễn Tông Quai (1693-1767) đường đi sứ - Đường thơ (阮宗奎1693-1767-去使和詩歌)”, (漢喃雜誌) Số 2 (81), 2006, tr. 3~10
阮黃燕, 「國外對越南燕行錄的研究」, 『芹苴大學科學雜誌』 36, 2015
阮公理, 『越南古典文学中的邦交诗-面貌与价值』, 『越南研究』, 中國廣西師範大學, 2020
_____, 『越南研究』, 中國廣西師範大學, 2020

Studies on "Yan Xing Lu": An Overview and Prospects

Dinh Khac Thuan

Vietnam and China have a long and special diplomatic relationship. Vietnam have maintained a long-term tribute relationship with China in politics, and have been deeply influenced by Chinese character culture and Chinese literature. The Vietnamese dynasties frequently sent envoys to China. The envoys wrote many poems in Chinese on the journey to China's capital, and these poems were later assembled into the so-called "燕行錄 (Yanxinglu)". "燕行錄" has become one of the most valuable documents in Vietnam, which has been attracted much attention by scholars at home and abroad. The publication of the book "越南漢文燕行文文獻集成" has created convenient conditions for the study of 燕行錄 and spawned a lot of valuable research. Recently, we have discovered some unlisted poems, which provide new materials for future research.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e research results of 燕行錄, and then expounds the discovery and collection of new materials and makes a prospect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Vietnam, Diplomatic Poems, Yanxinglu, Chinese Character Documents

부록

1) 『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에 수록된 작품 목록(1314年~1884年)

第一冊

- 1 介軒詩集 陳朝 阮忠彦 撰
- 2 使華手澤詩集 后黎朝 馮克寬 撰
- 3 梅岭使華手澤詩集 后黎朝 馮克寬 撰
- 4 旅行吟集 后黎朝 馮克寬 撰
- 5 北使詩集 后黎朝 陶公正等 撰
- 6 使程日錄 后黎朝 阮公基 撰
- 7 默翁使集 后黎朝 丁儒完 撰

第二冊

- 8 往北使詩 后黎朝 阮公沆 撰
- 9 乾隆甲子使華叢咏 后黎朝 阮翹 阮宗奎 撰
- 10 使華叢咏集 后黎朝 阮宗奎 撰
- 11 使程詩集 后黎朝 阮宗奎 撰

第三冊

- 12 桂堂詩彙选 后黎朝 黎貴惇 撰

第四冊

- 13 北使通錄 后黎朝 黎貴惇 撰

第五冊

- 14 奉使燕京總歌并日記 后黎朝 阮輝 撰
- 15 北輿輯覽 后黎朝 阮輝 輯
- 16 華程詩 后黎朝 武輝珽 撰

第六冊

- 17 花程遣興 后黎朝 胡士棟 撰
- 18 北行叢記 后黎朝 黎 撰
- 19 使輶行狀 后黎朝 黎惟直 撰
- 20 星槎紀行 西山朝 潘輝益 撰

21 華原隨步集 西山朝 武輝璫 撰

22 華程后集 西山朝 武輝璫 撰

第七册

23 海烟詩集 西山朝 段浚 撰

24 海翁詩集 西山朝 段浚 撰

25 皇華圖譜 西山朝 吳時任 撰

26 燕台秋咏 西山朝 武輝璫 吳時任 潘輝益 撰

第八册

27 使程詩集 西山朝 佚名 撰

28 華程消遣集 西山朝 阮倬 撰

29 艮齋觀光集 阮朝 鄭懷德 撰

第九册

30 拾英堂詩集 阮朝 吳仁靜 撰

31 華原詩草 阮朝 黎光定 撰

32 華程詩集 阮朝 阮嘉吉 撰

33 華程學步集 阮朝 武希嘯 撰

34 枚驛馱餘 阮朝 吳時位 撰

第十册

35 北行雜錄 阮朝 阮攸 撰

36 使程諸作 阮朝 阮攸 撰

37 使程雜咏 阮朝 潘輝湜 撰

38 北行偶筆 阮朝 丁翔甫 撰

39 華輶吟錄 阮朝 潘輝注 撰

第十一册

40 軒叢筆 阮朝 潘輝注 撰

41 北游集 阮朝 黃碧山 撰

第十二册

42 華程略記 阮朝 鄧文后 撰

43 華程續吟 阮朝 潘輝注 撰

44 夢梅亭詩草 阮朝 張好合 撰

45 閩行雜咏 阮朝 李文馥 撰

46 華程偶筆錄 阮朝 黎光院 撰

第十三冊

47 粵行吟草 阮朝 李文馥 撰

48 粵行雜草編輯 阮朝 汝伯仕 撰

49 三之粵集草 阮朝 李文馥 撰

50 仙城侶話 阮朝 李文馥 編

第十四冊

51 鏡海續吟草 阮朝 李文馥 撰

52 使清文錄 阮朝 范世忠 編

53 周原雜咏草 阮朝 李文馥 撰

54 使程遺錄 阮朝 李文馥 撰

第十五冊

55 使程志略草 阮朝 李文馥 撰

56 使程括要編 阮朝 李文馥 撰

57 鄜川使程詩集 阮朝 范芝香 撰

58 燕行總載 阮朝 裴(木貴) 撰

第十六冊

59 燕行總載 阮朝 裴(木貴) 撰

60 星輶隨筆 阮朝 阮(勺收) 撰

61 方亭萬里集 阮朝 阮文超 撰

第十七冊

62 如燕驛程奏草 阮朝 阮文超 撰

63 志庵東溪詩集 阮朝 范芝香 撰

64 駟程隨筆 阮朝 潘輝泳 撰

第十八冊

65 東南儘美錄 阮朝 登輝 編

66 如清日記 阮朝 黎峻 阮思憫 黃竝 撰

第十九冊

67 燕輶筆錄 阮朝 阮思憫 撰

第二十册

68 燕輶詩文集 阮朝 阮思憫 撰

第二十一册

69 北溟雛羽偶錄 阮朝 范熙亮 撰

70 万里行吟 阮朝 裴文禩 撰

第二十二册

71 中州酬應集 阮朝 裴文禩 編

72 雉舟酬唱集〔中〕清朝 楊恩壽〔越〕阮朝 裴文禩 撰

第二十三册

73 每懷吟草 阮朝 阮述 撰

74 建福元年如清日程 阮朝 范慎遜 阮述 撰

第二十四册

75 燕輶日程 后黎朝 阮輝等 編繪

76 如清圖 阮朝 裴(木貴) 撰 阮朝 范文貯 繪

第二十五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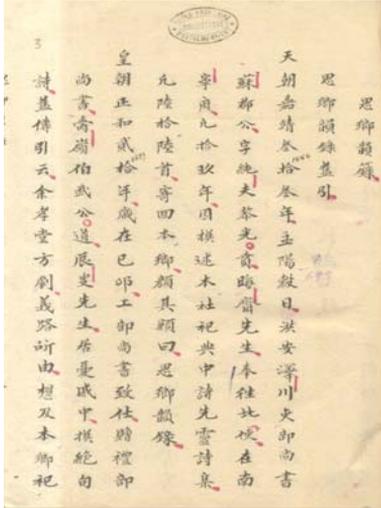
77 燕台嬰語 阮朝 裴(木貴) 撰 阮朝 佚名 繪

78 燕輶万里集 阮朝 裴文禩等 編繪

79 北使佳話 阮朝 佚名 撰

2) 새로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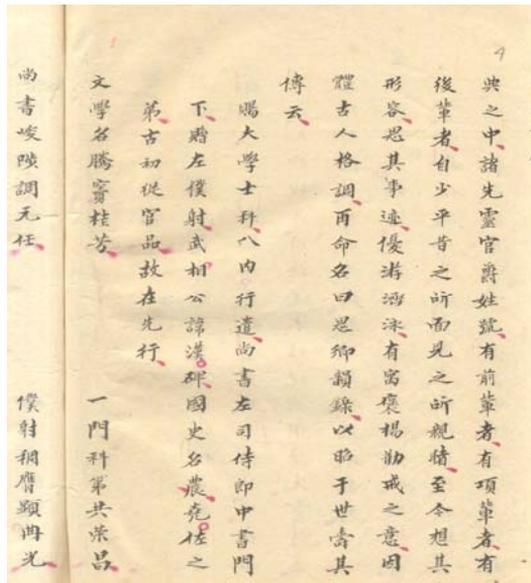
(1) 『漢喃研究院博物館』의 黎光賁의 『思鄉韻錄』, 號碼 A.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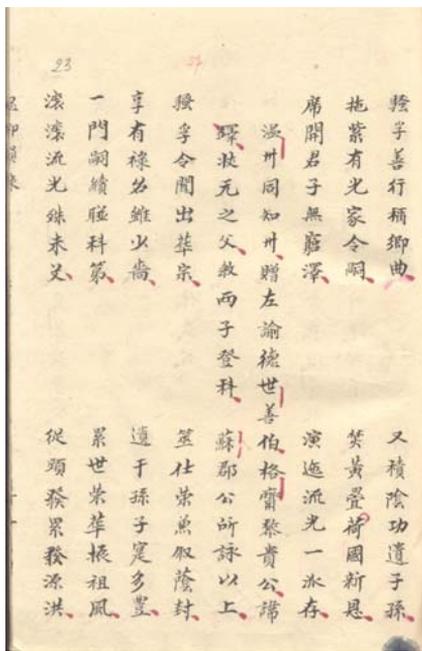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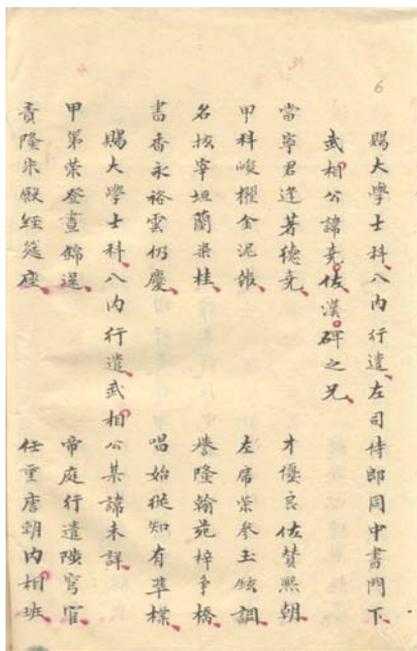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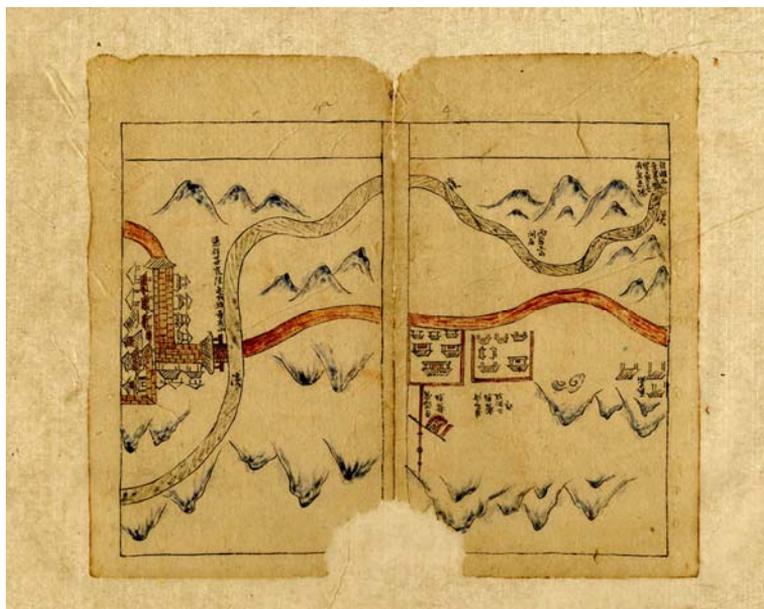


〈그림 5〉

(2) 阮輝瑩, 「皇華使程圖」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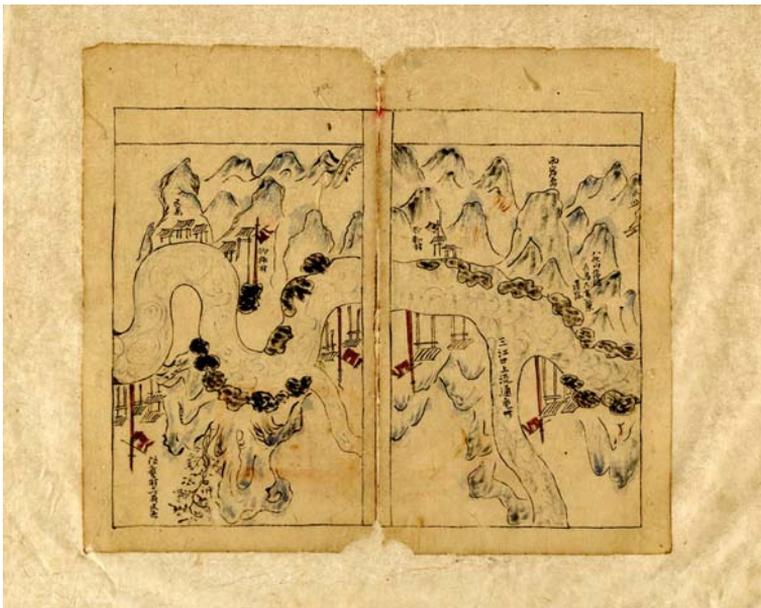
〈그림 7〉



〈그림 8〉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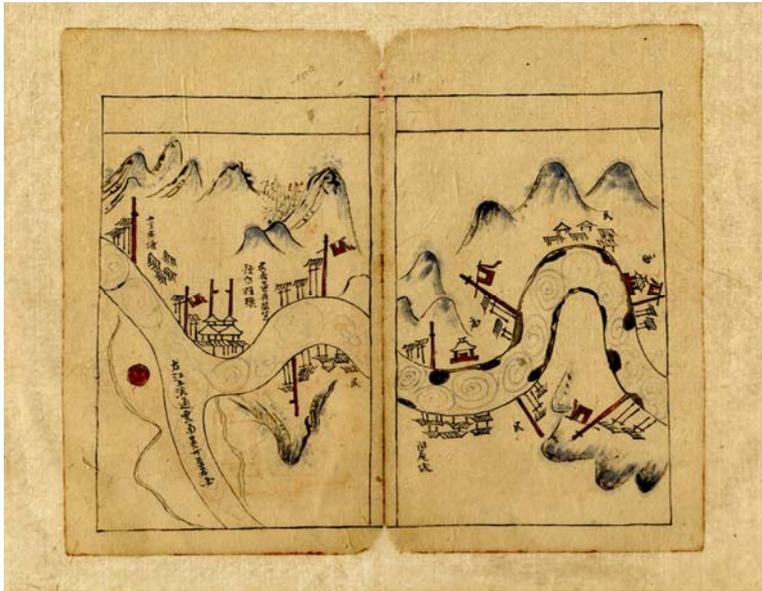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3) 阮輝瑩, 『使華叢詠』, 號碼A.1552



<그림 14>



<그림 15>

於後者蓋直區區文字而已耶居正為人篤信
好學而趨庭間所得尤工于詩余偶與同事遂
相深契居正數次訂囑余不敢以困陋辭畧述
其事并之簡編俾
乾隆戊戌秋李重陽後百後學瑤亭胡士棟隆甫頓
首書于金陵舟中
使萃叢詠前集序
癸亥夏過友人寓于靈山齋中得晤安南使君

〈그림 16〉

阮子舒軒哉尉博帶儒雅風流聆其言論不煩
譯語也接其丰裁藹然可觀也及叩其所學諸
子百家靡所不貫始知為讀書稽古之士尤長
於詩學其聲韻格律悉學唐人使君公務之
暇吟哦不旬日間得詩近若干首余偶過使
君舟中相與談詩使君因出一冊名使萃叢
詠集囑余為序余受而茶焉集中自出境
以來由粵西湖廣江右直抵金陵凡數千里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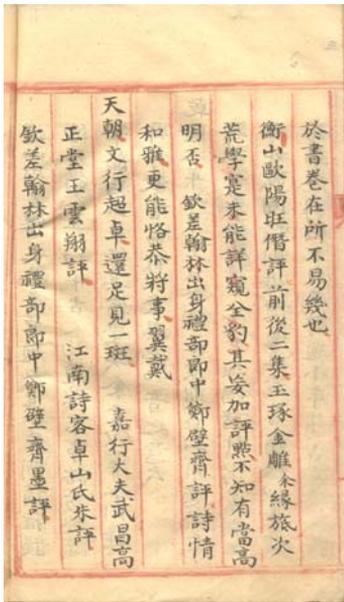
〈그림 17〉

過山川名勝之地多屬題詠其一片閒情雅韻
迥不備人至一切千古人物遺踪不事誇詡趣隨
筆韻拈出足徵其宿學矣余幸以萍水相逢
聊序數言篇首以表異地知音之意云
乾隆八年七月望日金陵張漢躬卓山甫題於石
頭城舟次矣歷讀使君詠唱諸什瀉景則工
鍊如畫陶情則襟懷逼真沈著痛快似少陵
高華流利似太白其詩題小序簡古有法非深

〈그림 18〉

於書卷在所不易幾也
衡山歐陽旺借評前集後二集玉琢金雕全緣旅次
荒學寔未能詳窺全豹其妄加評點不知有當高
明否 欽差翰林出身禮部郎中鄭璧齋評詩情
和雅更能恪恭將事翼翼
天朝文行起卓還足見一斑 嘉行大夫武昌高
正堂王雲翔評 江南詩客卓山氏朱評
欽差翰林出身禮部郎中鄭璧齋評

〈그림 19〉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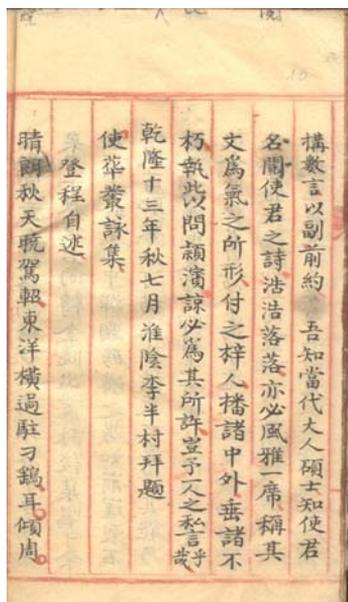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3〉